

제 80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본연극과 신체

홍선영
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 연구위원

일본에서는 타다 준노스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히라타 오리자의 도쿄노트라든가 하는 소리 없는 연극이나 다성의 연극 등 한국등의 국가에서 보기에는 특이한 형식의 연극이 많다. 과격한 타격신이 난무하는 등의 처음 보는 이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연극에서 중요한 ‘신체’의 근대는 무엇인가. ‘신체’는 가시화된 자기 존재 그 자체이며, 신체를 둘러싼 선천적인 측면, 즉 미와 추를 비롯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부분은 운명적인 것이며 특히 결정적으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혹은 힘든, 신체라는 것의 전제하에, 문명개화를 주장하기 시작한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인의 서구세계에 대한, 혹은 서구적인 이미지에 대한 동경과 흠모 그리고 그것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그렇다면, 연극에서의 신체 표현은 어떠하였는가. 불변의 것으로 인식되었던 ‘신체’, 혹은 신체감각은 역사, 사회, 문화, 전통의 영향을 받으며 신체의 심층부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서양연극을 연기하는 일본인 배우에 있어서는, 센다 고레야의 말 -- “먼저 무엇보다 뚝뚝하게 해 주세요. ... 언제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비장하고 위대하게 하세요.” -- 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한 서양 연극에 맞추어서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한편, 히지가타 요시등에 의하면, 대사의 번역작업에 따라서 일본적인 분위기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Q&A>

Q. 일본 연극의 기발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반화를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발하다고 할 지 모르나, 일본 연극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점차 그것이 뿌리를 박고 있다.

Q. 한일 신파극의 소비층의 타겟은 여성이며, 여성성의 한 표출방법이 신파극에서 발현되었다고 하겠는가.

A. 여성이 눈물에 더 약하므로, 타겟은 여성인 것이 맞다. 또한 여성성의 한 표출방법으로 신파극이 발현 및 발전되었다고 본다.

Q. 일본인의 몸으로 로미오 등을 표현하려면 어려움이 많을텐데.

A. 셰익스피어 연극이 일본에 소개된 초창기에는 낯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Q. 한국과 일본의 근대연극의 차이가 있는가.

A. 스토리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비극적인 결말이 많은 것에 반해, 한국은 해피엔딩이 많다.